

# 기호일보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특집](#) > [신년특집](#)

## 인천문화재단

2009년 01월 11일 (일) 15:46:58

양수녀 기자 [✉ circus22@kihoilbo.co.kr](mailto:circus22@kihoilbo.co.kr)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심갑섭)이 ‘문화인천의 창의적 실현’을 목표로 2009년의 출발을 알린다.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지원서비스 강화’, ‘시민문화복지 증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지역성의 재창안’, ‘인천영상위원회 활성화’ 등에 포함된 기존의 세부 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다수 포진시켰다.

이 중 공연예술 분야의 우수 활동 단체에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지원’,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될 ‘문화기본계획 연구’ 등이 눈에 띈다.

▶문화예술지원서비스 강화=첫 번째 사업목표인 ‘문화예술 지원서비스’에서는 지원사업의 다각화와 합리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집중 지원 및 육성을 역점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먼저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 발표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일반공모’, 연극·무용·전통·음악·다원 등 5개 분야의 중대형 무대공연 작품의 제작을 지원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의 예술 창작활동을 다년간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정공모’가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또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를 3년간 집중 지원해 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지원’이 마련됐다. ‘문화예술기획인력 운영지원’과 ‘공연창작연습실 운영’, ‘문화예술교육’도 작년도에 이어 계속된다.

▶시민문화복지 증진=두 번째 사업목표인 ‘시민문화복지 증진’에서는 모두 7가지 사업이 포함됐다. 재단은 우선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민밀착형 문화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으로는 국내·외 대규모 공연·전시 등을 기획,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규모 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인천지역 선착장의 시각 환경을 공공미술을 통해 개선하는 ‘선착장 바꾸기’가 포함됐다. 특히 선착장 바꾸기는 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이 밖에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인천 지역사랑티켓 지원’, ‘인천미술은행 운영’ 등 기존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문화예술교류 활성화=세 번째 사업목표인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부문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진흥기관 협력회의를 현재 3개국 6개 도시에서 5개국 10개 도시로 늘리는 등 인천발 협력형 교류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지역 문화지원기관 교류 방안 워크숍 개최, 지역 내 문화예술인력 해외참관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작게는 인천-동아시아 간 문화예술 인력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크게는 인천지역에 한정돼 있는 문화적 시야를 더 큰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목표가 있다.

또한 지역 내외의 문화예술 관련 주제를 선정해 토론회를 여는 ‘문화도시포럼 운영사업’과 올해 처음 선보이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행’도 진행한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은행은 지역 내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및 기타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성의 재창안=네 번째 사업목표인 ‘지역성의 재창안’에서는 인천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 문화예술정책 개발을 통해 인천의 중장기 문화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문화비평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격월간 ‘플랫폼 발간’, 인천의 문화를 정리·기록해 문화지도로 활용할 ‘문화재단 총서 발간’, 인천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자료 축적 및 정보를 제공하는 ‘예술연감 발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새 사업인 ‘인천시 문화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문화도시 인천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우현상 운영’, ‘인천근대문화유산 답사코스지도 제작’, ‘근대한국학컬렉션 연구’ 등도 진행된다.



▶인천영상위원회 활성화=마지막 사업목표인 ‘영상위원회 활성화’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적극적인 로케이션 유치사업이 펼쳐진다.

여기에는 국내 영상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 로케이션 팸투어’ 진행,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장·단편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는 ‘인천 영화 제작 지원’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참여형 문화조직자(문화PD)를 양성해 동영상을 통한 문화예술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문화PD 운영’, 영화감독과 관객이 함께 하는 ‘디렉터스 뷰’, 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한 영화를 상영하는 ‘인천 영화 상영회’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영상위는 ‘인천영상위원회 홍보사업’을 통해 영상위의 모든 사업과 지역의 영상 인프라를 소개하기 위한 홍보사업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인천문화재단은...

출범 5주년을 맞은 인천문화재단은 2009년의 각 사업을 통해 예술지원체계 내실화와 문화에



술과 사회 각 분야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 문화적 관점을 지닌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재단이 지역 문화계 안착을 위해 펼친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상 문화사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시민밀착형 문화사업 확대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문화재단이 지난 4년간 다져 놓은 초석을 바탕으로 인천

시의 장기적인 문화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재단이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 이런저런 고민을 해온 만큼 무리 없이 실현되리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인천문화재단의 2009년 살림 규모는 인천시 사업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자체 예산 등을 포함해 120여억 원이다.

이는 총액 기준 지난해보다 15억여 원이 늘어난 규모로, 증액의 대부분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일반 공모가 차지하고 있다.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찜하기